

KT 노동조합

현 장 과 함 께 하 는 노 동 조 합 건 설

발행인 : 김구현 편집인 : 허 진
 주소 :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전화 : 031-727-2820(교육선전실 2850)
 팩스 : 031-727-4815
 홈페이지 : www.kttu.or.kr
 디자인 : 디자인 여백(02-2279-9631)

10 1 4th

2010년 4월 5일(월)

2010년도 전국대의원대회 성황리 개최

김구현 위원장 “고용안정·사회공헌 활동 중심의 HOST운동 전개 할 것”

노동조합 2010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가 3월 30일(화) 2개의 심의안건을 모두 의결처리하고 결의문 채택을 끝으로 오후 5시 30분 폐회했다.

전국 12개 지방본부에서 모인 대의원과 조합간부들은 이날 오전 지리산 수련관에 입소해 숙소를 배정받은 뒤 오후 1시 30분부터 대강당에서 노동가요와 투쟁구호 등을 교육받았다. 곧이어 2010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본대회 1부 행사가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1~9대 전직 위원장 6인 전원 참석해 자리 빛내... 김구현 위원장 “10대 활동 결실 맺기 위해 힘쓸 것”

본대회에는 김구현 위원장, 김해관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조합간부 및 대의원 그리고 각계각층의 내외빈 등 총 500여명이 함께 했다.

특히 노동조합 1·2·3대 최상용 위원장, 4대 정영수, 5대 유덕상, 6대 김호선, 7대 이동걸, 8·9대 지재식 위원장 등 전직 위원장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고, KT링크커스노동조합 이삼재 위원장, KTDS노동조합 이철희 위원장, KT텔레캅노동조합 박정수 위원장, 곳모닝에프노동조합 김도완 위원장 등 계열사 위원장들도 함께 했다.

또한 한나라당 18대 김성태 국회의원, KT 이석재 회장, 서유열 홈고객부본 사장, 전인성 GSS부본장, 권사일 경영지원실장, 김원기 노사협력담당 등이 참석했다.

김구현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올해는 현장과 함께하는 10대 집행부가 출범 2년차를 맞아 결실을 맺어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하며 “10대 집행부는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해 함께 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모든 일의 성과를 조합원들에게 돌려 조합원들의 실리를 한나라도 더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6명의 전직 위원장을 대표해 단상에 선 최상용 초대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전국대의원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위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축하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구현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시대여건을 잘 감안하여 국민 속의 노동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격려했다.

KT링크커스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이기도 한 김성태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오는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다”며 “김구현 위원장을 중심으로 활발 봉진 노동조합을 보니, 경영위기를 돌파한 KT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석재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외 관계자, 투자자들을 만나 새로운 노동운동과 신노사문화 선언의 후광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노동조합은 지난 1년간 아무도 쓰지 않은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박수를 보냈다. 아울러 “KT를 국민이 사랑하는 기업으로 만들어 주신 김구현 위원장과 10대 집행부에 감사하

며, 경영진은 KT가 성장하는 통신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2개 안건 만장일치 통과

오후 3시 40분 노동조합 2009년 활동을 정리하는 영상상영 후, 4시 20분 제1회 정기전국대의원 157명 가운데 156명이 참석, 성원이 보고되어 곧바로 본대회 2부가 진행됐다.

의장은 회순에 따라 서기와 사찰을 선출했고 집행부가 제출한 회순이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2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안건은 ▲ 2009년도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 2010년도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 1호 안건과 2호 안건이 순서대로 상정돼 대의원의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며, 이어진 기타토의 시간에는 성과급체계

차등폭 확대와 선택형 복지제도 등이 의결로 개진됐다.

끝으로 전국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격동하는 정세에 맞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지켜 낼 것 ▲노동법 개정을 필미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외부의 책동을 철저히 배격하고 노동조합 자주성을 지켜나갈 것 ▲신노동운동 전략인 HOST운동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 등을 결의했다.

한편, 본대회 1부 행사에서는 우수지부 및 우수조합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수상지부 및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 우수지부(총 15개 지부)

- ▲강북지방본부 서울북부NSC지부(지부장 김재구) ▲강남지방본부 서울남부법인사업단지부(지부장 김인자) ▲서부지방본부 서울강서NSC지부(지부장 신기복) ▲서부지방본부 부평지부(지부장 민형식) ▲부산지방본부 창원지부(지부장) 이영근 ▲부산지방본부 동부산NSC지부(지부장 권상기) ▲대구지방본부 대구법인사업단지부(지부장 변우영) ▲본산지지방본부 강서무선네트워크운영단지부(지부장 윤용현) ▲본산지지방본부 인재개발원지부(지부장 천성영) ▲전남지방본부 송정지부(지부장 나중국) ▲전북지방본부 팔봉지부(지부장 고대웅) ▲충청지방본부 충청NSC지부(지부장 이종춘) ▲충남지방본부 둔산지부(지부장 한금수) ▲충북지방본부 영동지부(지부장 박희삼) ▲강원지방본부 강릉NSC지부(지부장 오홍주)

■ 우수조합원(총 17명)

- ▲강북지방본부 경기북부마케팅지부 홍중기 ▲강북지방본부 광진지부 이효순 ▲강남지방본부 서울강남네트워크지부 오재찬 ▲강남지방본부 수원지부 이종태 ▲서부지방본부 인천마케팅단사업센터지부 김영래 ▲부산지방본부 영도지부 임옥정 ▲대구지방본부 북포항지부 이윤수 ▲본산지지방본부 국제전화국지부 김선준 ▲본산지지방본부 금산위성센터지부 최윤수 ▲전남지방본부 목포네트워크지부 박민수 ▲전북지방본부 무주지부 강삼희 ▲충남지방본부 청양지부 윤용준 ▲충남지방본부 충청무선네트워크지부 김성기 ▲충북지방본부 청주지부 김동호 ▲강원지방본부 고성지부 손진환 ▲강원지방본부 홍천지부 고혜숙 ▲제주지방본부 제주네트워크지부 김익수

노사 YOUTH 장학사업 대상 고교생 210명 선발

노동조합은 4월 1일(목) HOST운동의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인 취약계층 고교생을 위한 ‘노사 YOUTH 장학사업’ 대상자로 210명의 고교생을 선발했다.

노사 YOUTH 장학사업은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은 이번 장학사업을 위해 지난 3월 8일(월)부터 19일(금)까지 12개 지방본부를 통해 후보를 추천받고, 26일(금)까지 홍보실과 공동으로 심사를 진행해 대상자를 엄선했다.

심사기준은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발전 가능성이 큰 저소득층 고등학생 △한 부모·조손·다문화 가정 및 소년소녀 가장 △정부가 및 외부지원을 받지 않는 고등학생 등을 우선시 했다.

이에 따라 노사 YOUTH 장학학생들은 2분기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지원받게 되며, 방학기간에는 KT노사가 운영하는 교양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단, 장학금은 학생 계좌로는 직접 입금하지 않으며, 해당학교에 수업료 명목으로 계좌입금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사는 4월 6일(화) 분당 KT본사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한편, 이번 장학사업은 노동조합이 지난 3월 5일(금) 선언한 HOST운동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은 조합원과 국민을 위한 독창적 노동운동을 펼치기 위해 무료인터넷교육·소년소녀가장 지킴이·녹색지킴이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2010년 전국대의원대회 대회사

“조합원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노동운동 약속”

2010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달려오신 대의원 동지들과 조합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김성태 의원님과 KT그룹노조위원장님들 및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이석재 회장님께도 조합원을 대표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귀한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바로 KT노동조합 초대 최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직 위원장님들이십니다. 대의원 여러분, 힘찬 박수로 전직 위원장님들을 맞이해주시지요.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올해는 ‘현장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을 표방한 10대 집행부가 출범 2년차를 맞는 해입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KTF와의 합병에 따른 조직개편이 단행됐고, 단체교섭을 통해서 인사보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15년간 몸 담았던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HOST운동’으로 대변되는 신노동운동 전략을 선포하였습니다. 물론 변화의 뒤에는 후유증도 있었습니다. 연이은 조직개편으로 현장에 혼란이 발생했고 경영진의 과도한 영업강요로 조합원들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민주노총 탈퇴를 두고 색안경을 낀 일부 세력들의 음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감히 변화를 선택했고, 올해엔 변화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10대 집행부의 성과가 올해에 달려있습니다.

10대 집행부가 나아갈 길은 명확합니다. 고용안정을 기조로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조직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모든 일의 성과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하며 조합원들의 실리를 한나라도 더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0대 집행부는 지난 3월 5일 호스트운동을 선포하고 사측과 신노사문화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사상생과 고용안정을 실현하고 선진 근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올해부터 ‘중고생 자녀를 위한 인터넷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사교

육비로 위장대는 조합원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문화행사를 마련하고 퇴직 조합원을 위한 창업지원, 재취업 프로그램도 강화할 것입니다. 과거 상급단체에 내던 회비를 환원해 현장 조합원에게 돌려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이 같은 노력은 우리 힘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신노동운동, 신노사문화는 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의 내부만족이 뿌리로 뒷받침 되어야 상생은 물론 회사발전도 뒤따르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진리입니다.

앞으로 회사는 비용절감과 신성장동력 확보에 신경 쓰는 것 못지 않게, 조합원의 고통과 조합원이 원하는 것을 더욱 최 우선시 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KT 선진 노사관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2010년 노동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실업자는 늘고 가계부채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개정된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전임자임금지급이 금지되고, 내년 7월부터는 복수노조가 허용됩니다. 노동운동의 일대 격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내외의 거센 도전에 직면한 지금, 대의원 동지들이 승리의 열쇠이자 무기입니다. 동지들이 중앙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현장을 안정시키고 조합원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대회는 집행부의 1년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우리 모두의 결심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대의원 동지들의 힘과 의지를 모아주시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회를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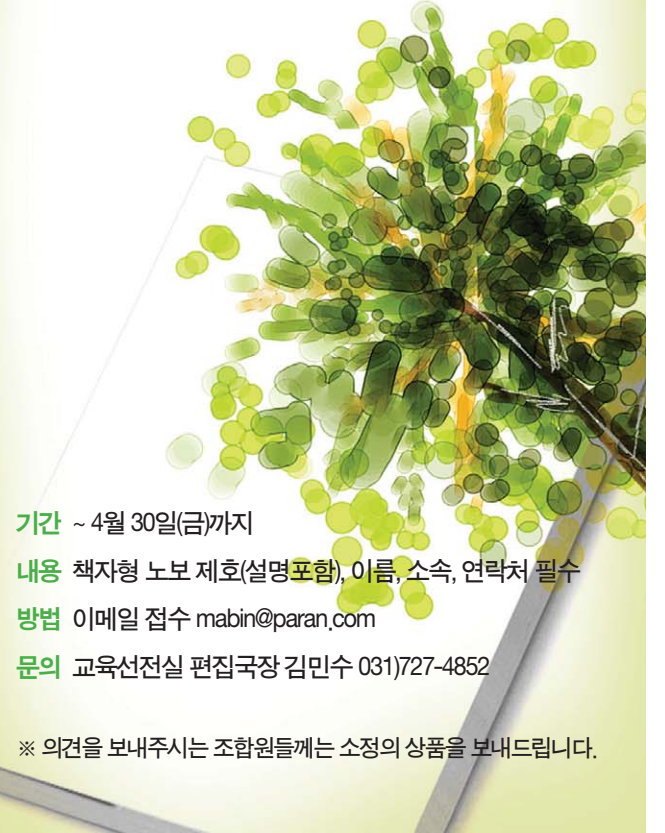
2010년 3월 30일
 KT노동조합 위원장 김 구 현

우리사주 배당금 지급

- 기준일: 2009년 12월 31일(월)
- 배당금: 1주당 2,000원
- 대상주사: 기준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보유분
- 지급방법: 별도(금식통근비)계좌
- 지급일: 2010년 4월 6일(화)

새롭게 탄생할 노동조합 ‘책자형 노보’의 제호를 공모합니다

KT노동조합은 현재의 신문형 노보를 책자형 노보로 전환해 발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원과 국민을 위한 새로운 HOST운동을 지향하는 노동조합의 이미지에 걸맞는 신선하고 역동적인 ‘제호’를 공모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기간 ~ 4월 30일(금)까지

내용 책자형 노보 제호(설명포함), 이름, 소속, 연락처 필수

방법 이메일 접수 mabin@paran.com

문의 교육선전실 편집국장 김민수 031)727-4852

※ 의견을 보내주시는 조합원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2010 전국대의원대회 그 뜨거운 현장속으로



▲ 전국 12개 지방본부에서 모인 대의원과 조합간부들은 이날 오전 지리산 수련관에 입소해 숙소를 배정받은 뒤 오후 1시 30분부터 대강당에서 노동가요와 투쟁구호 등을 교육받았다.



▲ 본대회에는 김구현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간부 및 대의원 그리고 1~9대 전직위원장, KT 계열사 노동조합 위원장, 이석재 회장 등 각계각층의 내외빈 등 총 5000여명이 함께 했다.



▲ 김구현 위원장은 "10대 집행부는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함께 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모든 일의 성과를 조합원들에게 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6명의 전직 위원장을 대표해 단상에 선 최상용 초대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구현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시대여건을 잘 감안하여 국민 속의 노동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격려했다.



▲ 김구현 위원장과 1~9대 전직 위원장이 모두 앞으로 나와 KT노동조합의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며 손을 맞잡고 결의의 해, 장내를 뜨겁게 달궜다.



▲ 본대회 1부 행사에서는 우수지부 및 우수조합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지난해 귀감이 된 우수지부 15곳 지부장과 우수조합원 17명이 단상에 올랐다.



▲ 2010 전국대의원대회 안건은 ▲2009년도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2010년도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민중일치로 의결되었다.



▲ 안건 심의·의결 후 이어진 기타토의에서는 성과급체계 차등폭 확대와 선택형 복지제도에 대한 의견 등이 개진됐다.



▲ 대의원들은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지켜낼 것 ▲노동조합 자주성을 지켜나갈 것 ▲HOST운동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 등을 결의했다.



▲ 노동조합 2010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가 3월 30일(화) 2개의 심의안건을 모두 의결처리하고 결의문 채택을 끝으로 오후 5시 30분 폐회했다.

결의문 노동운동의 격변기, 혁신과 단결로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가자

2010년 노동계를 둘러싼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경제회복에 대한 장밋빛 전망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엄혹하다.

몇몇 대기업이 구조조정 of 태풍에 휩싸였고, 중견 건설사인 성원건설의 부도를 시작으로 건설업계의 부도 공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업률과 실업급여 수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생계형 가계부채가 노동자, 서민의 목을 옥죄고 있다. 새해 벽두에 통과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노동운동의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올해 7월부터 전임자임금지급이 금지되며, 내년 7월부터는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정부와 재계는 이를 빌미로 노동운동의 싹을 없애려 책동하고 있고, 노동계는 노동운동의 미래를 걸고 총력대응을 준비 중이다.

격동하는 정국은 우리 대의원들의 단결과 혁신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철석같이 단결하고 노동운동의 혁신을 이뤄낼 때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 수 있다. 이에 우리 대의원 일동은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지켜내고 신노동운동의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격동하는 내외정세에 맞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지켜낼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법 개정을 빌미로 노동조합에 개입하려는 외부의 책동을 철저히 배격하고 노동조합 자주성을 지켜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운동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신노동운동 전략인 'HOST운동'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한다.

2010년 3월 30일
전국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리프레시/창업지원휴직 시행 안내

노동조합과 회사는 재충전을 위한 휴가 부여로 장기적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창업을 희망하나 실패에 대한 불안 때문에 고민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실질적 생애설계 지원인 '리프레시/창업지원휴직' 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리프레시 휴직

- 신청자격:**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휴직발령일 기준) 실근속 년수 10년이상 자중 최근 6개월 이상 정상근무자 등
- 선발규모:** 연간 300 ~ 350명 연 2회 시행
 - 3월 선발: 100명 내외, 4.1일자 휴직발령
 - 9월 선발: 250명 내외, 10.1일자 휴직발령
- 선발기준:** 기관 TO내 평가 미 실시(단, 기관 TO 초과 신청 시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
- 업무성과, 신청동기, 휴직기간 활용계획 등 종합 평가
- 지원접수:** 3월 22일(월) ~ 26일(금)
- 기관별 선발:** 3월 29일(월) ~ 30일(화)
- 휴직발령:** 2010년 4월 1일(목) ~

2 창업지원 휴직

- 지원자격:** 명예퇴직 자격이 되는 직원 중 희망자
 - 정년잔여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남은자(휴직발령일 기준)
 - 최근 6개월 이상 정상근무자
 - 교육과전 북귀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만료자
- 선발규모:** 제한 없음
- 신청절차:** 별첨참고
- 추진일정**
 - 희망자접수: ~ 4월 16일(금) (시스템등록 4월 14일(수))
 - 예심: 4월 19일(월) ~ 4월 21일(수)
 - 본심 및 최종선발: 4월 22일(목) ~ 4월 27일(화)
 - 협약체결: 4월 28일(수) ~ 4월 29일(목)
 - 휴직발령: 2010년 5월 1일(토) ~
-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 2010년 정기인사운영 계획(2009.9.29) '리프레시휴직', '창업지원휴직' 관련근거 적용

3월말 전 직원에 FMC폰 지급

노동조합, 회사와 업무용 단말기 교체 합의



노동조합과 회사는 내부고객인 조합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후 단말기를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3월 16일(화) 아래와 같이 합의한 뒤, 이어 3월말 FMC폰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 1) FMC폰 지급**
 - 대상: 전 직원
 - 기종: FMC폰(EV-F110)

- 안드로이드폰(53만원): 월22,000원
- 쇼음니아폰(80만원): 월33,300원

- 2) 스마트폰 무이자 할부**
 - 대상: 할부구매를 원하는 직원에 한함
 - 기종: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쇼음니아폰
 - 할부금: 단말기 가격 24개월 분납기준, 단, 할부 이자 전액 회사 지원

- 3) 지급시기**
 - FMC폰: 2010년 3월말
 - 스마트폰: 신청자 접수 후(신청 후 15 ~ 30일 경과)

- ※ 스마트폰 조건
 - 개인부담: 단말기 가격(할부금 원금)
 - 아이폰(90만원): 월 37,500원

- 4) 유의사항**
 - FMC폰은 전 직원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종
 - FMC폰을 받지 않고 스마트폰 선택 시 해당 단말금액만큼 감액불가
 - 스마트폰의 경우 할부구매를 원하는 직원에 한해 단말기 원금 본인부담

[상반기 통신·노동 현황]

통신시장 FMC 대세... 노동운동은 시각변동 초입기

통신시장 - 통신 3사 중심으로

"본격적인 신호탄 쏜 유무선통합(FMC) 서비스"

2010년 국내 통신시장은 통신 3사를 중심으로 한 무선인터넷 대중화와 FMC(Fixed Mobile Convergence) 서비스의 약진,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업으로의 변화 모색이 돋보인다.

통신 3사의 움직임이 이를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유선시장의 정체돌파를 유무선 통신사간 합병에서 모색했다면, 2010년은 무선인터넷 시장 확대와 FMC의 본격적 태동 속에서 ICT기업으로의 장기적 청사진을 그리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KT-KTF합병이 성공적으로 성사되었고, 올해는 LG텔레콤이 자회사인 LG파워콤과의 통합을 발표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역시 당장 합병을 서두르지 않는지만 계열사로서 유무선 통합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 KT가 아이폰을 출시하며 시작된 스마트폰 보급과 데이터 정책제 기입 증가 현상이 무선인터넷 시장 성장을 불러왔다.

또한 통신 3사는 ICT 기업으로의 도약을 공격적인 지원정책으로 발표했다. 특히 KT는 유무선통합 기업의 장점을 살려 FMC서비스를 가정 및 기업시장에서 본격화 할 것으로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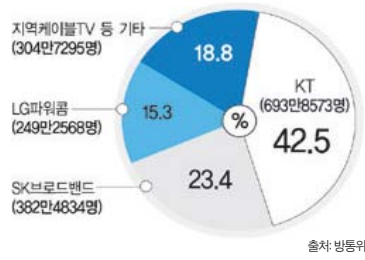
1) 스마트폰 인기와 무선인터넷 시장 확대

지난해 11월 KT의 아이폰 출시로 인한 스마트폰 열풍과 함께 무선데이터요금 가격인하로 '손안에 세상'이 넓어졌다.

지난 2월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100만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를 활용한 무선 인터넷 확대가 이동통신사들의 화두로 떠올랐다. 그 동안 네트워크 과부하, 음성매출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적극성을 띠지 않았던 통신사들은 이제 일단락 무선인터넷 확장과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내세우며 무선인터넷 시장의 최강자가 되기 위한 경쟁에 나섰다.

스마트폰 가입자 현황 (단위: 만명)
구분: KT, SKT, LGT
구분: 아이폰, 아이폰2, 아이폰3GS, 안드로이드폰, 기타
구분: KT, SKT, LGT
구분: KT, SKT, LGT
구분: KT, SKT, LGT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현황 *2009년 11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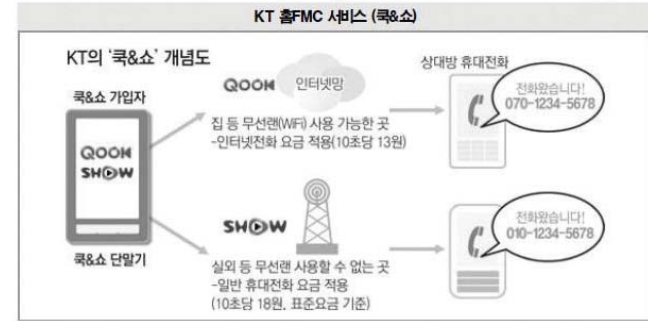
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전화 가입자 유치를 시작한 유선시장의 경쟁이 IPTV와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한 유선상품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결합상품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마케팅 비용이 상승하는 부담을 안고 있기도 하다.

3) FMC 넘어 ICT기업으로 모색

KT는 지난해 합병으로 인해 유무선 통합이 마무리 되었고, 그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FMC 서비스에 가장 적극적이다. KT가 출시한 홈FMC 서비스는 하나의 단말기를 통해 WiFi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인터넷전화를 저렴하게 사용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WCDMA 망을 사용하여 음성통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업용 서비스를 개인으로까지 확장한 것이다.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일반휴대폰으로 (WiFi+WCDMA, WiFi+WCDMA+WiBro)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저렴한 요금뿐 아니라 무선데이터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데이터 사용량 증대에 따른 WCDMA 망의 부하를 WiFi와 WiBro로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FMC서비스는 무선통신의 음성매출 감소를 감수하고 가격경쟁력 및 데이터 사용량 증가를 기대한 것으로 KT는 WiFi 지역 내 무선인터넷 사용 빈도를 높여 전체 시장규모를 증가시키고, 그 외 지역으로의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KT 등은 공격적으로 ICT 사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겠다고 밝혔다. ICT는 유무선 가입자 및 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토털 솔루션을 개발해 다른 산업과의 시너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노동운동 시각변동 초입기

"2010년 7월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2011년 7월 복수노조 허용"

(1) 노동법 개정

2010년 1월 1일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최대 쟁점이 됐던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제는 올해 7월부터, 복수노조 허용은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둔 후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임자의 임금을 노동조합이 조합비로 충당하고, 사업장 안에 여러 노조가 공존하게 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노조의 투명성이 저하돼 쟁의행위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사측도 소수노조 난립 등으로 노사협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노동계는 복수노조의 최대 쟁점인 '창구단일화'로,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의 최대 화두는 '근로시간연계(타임오프)'로 보고 있다.

(2) 새로운 노동운동 비법 열풍

국내 노동계는 그 동안 양대 노총으로 나뉘는 성향이 짙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민주노총이 단위노조의 잇단 탈퇴로 1995년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가 2002년 68만5000여명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을 탈퇴한 미가입 노조 조합원 수는 2008년에 28만2666명으로 전년 대비 6.6%(1만 7610명)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30만명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탈퇴 노조들은 조합원의 권익과는 동떨어진 정치투쟁 위주의 노동운동 대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노동운동을 원한다고 밝혔다. KT

Table with 2 columns: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Rows include 시행시기, 교섭창구 단일화, 산별노조 교섭권 없음, etc.

노동조합도 2009년 7월 17일 조합원총회를 통해 15년 만에 삼급단체인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했고, 수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2010년 3월 5일 독자적 신노동운동 'HOST'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KT노동조합은 조합원과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노동운동을 강조하고 삼급단체에 지불하던 비용을 조합원과 사회에 환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민주노총을 탈퇴한 노조들을 중심으로 뭉친 희망연대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희망연대는 노동자를 섬기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조를 가지고 세 확장해 나갔다. 이들은 기존 양대노총의 차기론 반응과 지켜보자식 기류 속에서 '노동자가 주인으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3) 국민과 조합원을 위한 KT노동조합의 독자적 HOST운동

2010년 국내 노동계는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큰 혼란에 직면해 있다. 고용불안이 대두되면서 노동운동도 전반적으로 위축되었고, 여기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비정규직 문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시행을 앞두고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주지해야 할 사실은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으로 대표되는 노동3권은,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헌신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라는 점이다. 또한 조합원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투쟁일선도 적극 구호, 정치노선에서 벗어나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자주적인 노동운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삼급단체 탈퇴 등으로 가시화되었다. KT노동조합은 2010년 3월 5일 KT노동조합만의 창조적 노동운동 'HOST운동'을 발표했다. HOST 운동은 Harmony(화합), Originality(창조), Share(나눔), Transparency(투명)를 결합한 약어로 KT노동조합이 지향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정신을 함축했다.

KT노동조합은 통신산업환경의 특성을 적극 반영해 국내 통신노조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을 안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또 민영화 수순을 밟으며 우리나라 100년 통신 역사의 중심에서 있던 통신공공으로의 상징성과 영향력은 노동운동에서도 상당한 책임감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김구현 위원장은 "지난해 민주노총 탈퇴 이후 새로운 노동운동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열망이 뜨거웠다"고 설명하며 "조합원을 만족시키고 또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 소외계층까지 배려할 수 있는 KT만의 독자적 노동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KT노동조합은 노동운동에 대한 비난과 불신을 잠재우고 신뢰받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고자 삼급단체에 지불하던 비용 일부를 HOST운동기금으로 전환했다.

2010년 각 사업장의 노사관계는 노동조합과 경영진의 얼굴이 될 것이다. 노사는 단기적 이해상충, 중장기적으로는 상생의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과도한 정치화를 지양하고 노조 전임자의 전문성과 역할을 정비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대의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과 국민의 요구와 희망에 부응하고 객관적 이익을 위한 변신을 거듭해야 한다. KT노동조합은 2010년 노동법개정으로 인한 시각변화를 앞두고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건강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앞장설 방침이다. 또한 조합원들의 쟁전, 국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한국 노동운동 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다.

산업재해 상담사례

장해급여 수령 이후의 치료문제

Q 산재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한 이후에 다시 질병이 재발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 1) 장해급여 지급 이후 발생한 치료비, 투약비 등은 누가 부담하나요? 2) 장해급여를 받은 이후 산재로 치료 받길 원하는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산재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수령했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산재요양이 종료되어 신체에 남은 장애에 대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해급여를 모두 수령한 이후의 치료 등에 대해서는 산재요양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수령하고 장해보상이 종료된 이후에도 최초 요양승인 받은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료 종결 시 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재차 산재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 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최초 요양승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산재보험을 통한 치료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상식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1. 의 의

보험급여 산정 시 그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못 미치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 다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금액 산정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적용되지 아니함.

2. 금액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 1.8을 곱한 금액은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 되며 1/2를 곱한 금액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 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을 절사하며, 적용기간은 해당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Table with 4 columns: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Rows: 최고 보상기준 금액, 최저 보상기준 금액.

[표1] 연도별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Table with 7 columns: 구분, 요양 급여, 휴업 급여, 장애 급여, 간병 급여, 유족 급여, 상병보상연금, 정의비. Rows: 최고 보상기준 금액, 최저 보상기준 금액.

[표2] 보험급여별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자료제공 :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노동조합, 중고생자녀 무료인터넷교육 4월 9일(금)까지 접수

조합원 사기 UP! HOST운동으로 사교육비 절감! 4월 5일 수강 개시

노동조합은 지난 3월 5일 선한 'HOST운동'의 일환으로 조합원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무료 인터넷 교육을 시행합니다.

우수한 콘텐츠와 씨름이 있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조합원 가정의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내용: HOST운동 노사상생프로그램 중 '조합원 자녀 무료 인터넷 교육'
목적: 우수업체 무료 인터넷 교육을 통한 조합원 자녀의 사교육비 절감
대상: 전 조합원 중고등학생 자녀(전 임직원 인사가족 등재자에 한함)
콘텐츠 제공: 중학생 http://7wisehome.kr 고등학생 http://ktedui.com

이용절차

- 1) KT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 [http://kttu.or.kr]
2) 사이트 우측 Quick메뉴 '무료인터넷교육' 클릭
3) 안내 화면 보기 '관련내용 확인'
4) 화면 아래 쪽 각각 해당분야 '중학생·고등학생 선택 신청하기' 클릭
5) KT 직원 인증 '사원정보 확인'
6) 자녀정보 등록 '이용자 ID 신청', '연락처 정보', '학교 정보' 등
7) 4월5일(월)부터 강좌 수강하기.
해당 사이트에서 "등록한 ID 이용" 학습



▶무료 인터넷 교육의 모든 것 Q&A

■ 교재는 지급하나요?

- 중학생: 학교별 교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재 무료제공, 회원ID 신청시 배송지를 정확히 기재요망
- 고등학생: 학교별 교재가 다양해 지급 불가.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 구매(지원불가)

■ 대상은 어디까지 구분되죠?

- 전체 임직원 대상의 가족(자녀) 등재자에 한함
- 그 외 사촌, 조카 등은 대상이 아님
- 현 인사시스템 DB 기준에서만 자녀등록 가능함

■ 아이디는 어떻게 등록하죠?

- 임직원 정보확인 및 학생정보를 모두 등록 해야 함 (사원번호 인증 및 자녀 회원정보까지 등록)
- 임직원이 등록 후 자녀에게 해당 사이트의 회원ID와 패스워드를 알려주면 됨

■ 학습사이트 문의전화

- 회원가입 및 해당 사이트에 관련된 문의가 필요한 경우 아래 콜센터로 연락하세요.
- 중학생 : 7 WISE → ☎1577-7111
- 고등학생 : KTedui → ☎1577-8558

■ 주요일정

- 접수기간: 2010년 3월 22(월) ~ 4월 9(금)
- 이용기간: 2010년 4월 5(월)부터 ~ 중학생은 졸업, 고등학생은 대학입시까지



노동조합 강원 폭설피해지역 순회

김구현 위원장 “조합원 안전사고예방에 만전 기할 것”



회에 참석해 선로장애와 고객 서비스 애로사항을 전달받고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조합원의 고충이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근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을 강조하며, “현장업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KT노동조합은 지난 3월 10일(수) 폭설로 인한 업무장애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강원지방본부 소속·강릉·강릉NSC지부를 순회하고 해당 조합원들을 위로했다. 특히 김구현 위원장은 해당 지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순회 후 강원지역 지부 간담

회와 함께 2010 노동조합 HOST운동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한 뒤 “어려운 환경이지만 KT노동조합이 조합원과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노동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강원지방본부에 소정의 격려금을 전달한 뒤 간담회를 마무리 지었다.

김구현 위원장 서부지역 현장방문 “10대 집행부와 함께 새로운 노동운동 펼쳐자”



김구현 위원장은 지난 3월 10일(수) 강원지역 현장 방문 이후 계속해서 조합원과의 거리를 줄이고 이를 통해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3월 16일(화) 서부지방본부 소속 송도지부와 연수지부를 각각 방문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조합원들을 격려한 뒤 2010년 KT노동조합 HOST운동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소개하며 “노동조합과 함께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새로운 노동운동을 함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사정위 간담회서 HOST운동 소개

新노동운동 전개에 각계각층의 적극적 지원 호소

노동조합 김구현 위원장은 지난 3월 11일(목) 오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원장 김대모)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대모 노사정위원장은 KT노동조합이 새로운 노동운동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격려했으며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도 있는 만큼 계속해서 사회발전에 동참하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KT노동조합이 앞장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노사정위원장은 현재 국내 노동계의 이슈인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김구현 위원장은 KT노동조합이 선포한 ‘HOST운동’에 대해 소개하고 조합원들의 노동운동 노선에 대한 변화요구이기도 했지만, 노동조합도 이제는 지속적인 기업가치 창출과 사회적 책임실현 등 상생의 노사문화만이 고용 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노동조합들이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는 만큼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이러한 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정착할 수 있으려면 각계각층의 많은 노력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노사정간담회 회의에는 KT노동조합 임현재 부위원장, 차원규 정책기획실장이 동석했으며, 노사정위원회 대협실장과 기획과장이 함께 했다.

2차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 열려 전대일정 논의 등 현안공유 및 토론



노동조합은 3월 8일(월) 강남지방본부에서 ‘2010년 2차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를 열고 주요 행사 일정 및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2010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일정 및 계획을 공유했다. 전국대의원대회는 오는 3월 30일(화)과 31일(수) 양일간 지리산수련관에서 개최되며, 30일 12시까지 대의원 및 조합간부들은 모두 임소를 마치기로 정했다. 전체 임소자는 500여명 규모이며 전국대의원, 지방대의원, 지방본부 비정년 상무집행위원 이상 조합간부, 회계감사위원, 중앙선관위원, 표창장 등이 참가 대상이었다. 또한 노동조합 전직 위원장들과 KT그룹노조 단위 대표자들도 참석하며 우수지부 15개, 우수조합원 17명에 대한 표창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5일 공식선포한 노동조합의 ‘HOST 운동’에 대한 세부 논의도 진행됐다. 사회공헌 활동과 조합원 내부만족 계획, 그리고 노사화합 프로그램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2009년도 하반기 회계감사 수감

“상반기 권고사항에 대한 깔끔한 시정 돋보였다”

KT노동조합 회계감사위원회(대표위원 김재희 외 6인)는 2010년 3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2009 회계연도 하반기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총평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재희 회계감사대표위원은 총평을 통해 “2010년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도 심도 있는 수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인사한 뒤 “특히 지난 회기에 권고사항으로 지적했던 증빙서류 미비 부문이 눈에 띄게 시정되어 있어 감사하다”고 전달했다. 그러나 “중앙에서 지방본부 살림살이까지 총괄하다 보니 몇 가지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권고사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회계감사위원회는 각 실처별 행사 시 부득이하게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사유서류를 첨부할 것과 업무용 차량의 차계부 활용을 보다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구현 위원장은 “권고사항은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철저히 정비해 나가, 조합비 집행에 있어 한 치의 낭비나 착오가 없도록 애쓰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조합서 UNI-KLC 집행위 회의 개최

신임 집행위원장에 언론노조 김순기 수석부위원장 선임

UNI-KLC 집행위원회 회의가 3월 24일(수) 오전 11시 KT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UNI 최정식 사무총장과 김영삼 회계감사, 정보통신노련 이종석 상임부위원장, 사무금융노련 이두현 부위원장, 언론노조 이영순 조직쟁의실 부국장, 민간서비스노조 정민정 여성국장, KT노동조합 차원규 정책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노조의 현황보고 후 언론노조 김순기 수석부위원장을 UNI-KLC 신임집행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어 지난 3월 10일(수) 열린 대표자회의를 통해 정용건 사무금융노련위원장이 신임 의장으로 선출되고, 금융노조가 회계감사를 맡기로 한 결과를 공유했으며, UNI APRO 집행위원회 회의결과와 UNI KLC 집행위원(여성위원 변경 건 등) 보고되었다.

또한 여성위원회 보육정책관련 연구 등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토의 후 구체적인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31일(수) 오후 4시 금융노조회의실에서 다시 회의를 열어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최종 확정짓기로 결정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오는 5월 10일(월)~11일(화) 스위스 니옹에서 열릴 ‘UNI Telecom World Meeting’에 대한 일정공유를 끝으로 이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홈페이지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 커뮤니티 (존중하며 자유로운 의사소통)
- 통합검색 (한방에 키워드 검색)
- 블로그 (지부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세요^^)
- 알뜰장터 (싸고 좋은 것 서로 나눕시다!)

4.5 OPEN

Communicate

<http://kttu.or.kr>

휴대폰에서 이용하는 방법은?

- 스마트폰 → <http://m.kttu.or.kr>
- 핸드폰 → **5888 + Show 버튼

춘계 체육행사 시행

2010년도 춘계 체육행사를 맞이하여 각 지부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주시고, 각 지부장께서는 행사시 조합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 행사기간
2009.4.16(금) ~ 4.30(금) [토·일요일 시행금지]
- 대 상
재직중인 임직원(계약직 포함)
- 예산집행
1인당 2만원 준수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 시행방법
계열사와 공동시행 등 각 지부 실정에 맞게 적의시행
- 행사내용
- 체육대회, 등산대회, 소풍, 건강달리기대회, 공연관람 등
- 씨름, 그네 등 민속체육 및 여가, 레크레이션 활동
- 체육에 관한 전시회, 강연회, 세미나 개최 등